

근린주거환경이 가임기 여성의 거주 만족과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Effect Analysis of Neighborhood Environment on Childbearing-women's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Childbirth Intention

박태원 Park Taewon**, 천현숙 Chun Hyunsook***, 한연오 Han Yeonoh****

Abstract

The low birth rate problem in our society is entering a stage where it has a negative effect on our national competitiveness. Due to this characteristic, to increase the birth rate, a review is required to improve the urban environment, and focusing on women as urban space users, an evaluation of their neighborhood environment based on a microscopic approach is necessary. In this study, after selecting specific targeted locations, an evaluation was done on the neighborhood residential environment experienced by fertile women as space users, and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effect of their residential satisfaction on their intention to give birth. According to the analysis, as a factor affec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though it somewhat differed from location to location, in all the targeted locations except for Ganeung 1-dong in Uijeongbu City, life convenience turned out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the case of Sema-dong in Osan City, Dongtan 3-dong in Hwaseong City and Madu 1-dong in Goyang City, childcare friendliness turned out to have an effect on Residential satisfaction. In the case of Yangpyeong 1-dong in Yeongdeungpo-gu and Sema-dong in Osan City, Residential satisfaction turned out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give birth. As a factor affecting the intention to give birth, childcare friendliness turned out to be that factor in all the targeted loc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path analysis of all the groups, safety, childcare friendliness and life convenience turned out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as for variables that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give birth, safety and childcare friendliness turned out to be among them.

Keywords: Neighborhood Environment, Residential Satisfaction, Childbirth Intention, Path Analysis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율 감소 현상이 공통적

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현상은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가족의 단계를 넘

* 본 논문은 '천현숙 외. 2013.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의 '출산·양육친화적 근린단위 도시주거환경 실태 및 주민의식 분석'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하였음.

**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제1저자) | Prof., Dept. of Urban Planning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Kwangwoon Univ. | Primary Author | realestate@kw.ac.kr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of Human Settlements | hchun@krihs.re.kr

****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교신저자) | Ph.D. Candidate, Dept. of Urban Planning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Kwangwoon Univ. | realspace@kw.ac.kr

어 국가적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심화되고 있다. 또한, 출산율 감소 문제는 거주 만족의 경제적 여건과 함께 양육과 생활 공간 문제가 공존하는 복합적이고 다중적 양상이 내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 문제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Beets 1997; Pollard 2002; 김승권 2004; 유삼현 2007;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외 2009; 유계숙 2009; 엄명용, 김효순 2011; 정성호 2012; 이형민 2012; 염지혜 2013)은 인구, 사회·문화, 경제, 정책 등 측면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가임기 여성으로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주거환경 현황 탐색과 출산 주체로서의 의견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주된 생활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근린단위에서 집중적인 실태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통한 도시주거환경 차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도시주거 차원에서 출산율이 높은 근린주거환경과 출산율이 낮은 근린 주거환경을 심화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여 출산과 양육의 관점에서 가임기 여성들의 공간 사용자로서 체감하는 근린주거환경의 평가와 거주 만족이 향후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근린주거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근린주거환경의 평가와 근린주거환경이 거주 만족과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와 경기 권역의 출산율이 높은 행정동과 출산율이 낮은 행정동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사례 대상지에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정성적 조사방법 중 표적집단면접법(Focused Group Interview)을 진행하여 의견을 탐색하였으며, 실증분석의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AONVA분석, 경로분석(Path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프로그램으로는 PASW 18.0, Amos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환경과 인간행태

물리적 환경과 인간 행동의 관계를 설명 하는 이론은 사회적인 환경의 영향력을 주장하는 사회학자들에 대한 반증으로 환경결정론(Environmental determinism)¹⁾의 시각에서 시도되었다(Rapoport 1975). 환경결정론은 물리적 환경으로부터의 모든 자극이 유기체의 외적 환경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자극들은 인간의 지각 현상과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Bell 1978). 이러한 환경결정론적 관점은 더욱 발전하여 자연 및 인공 환경을 포함하는 물리적 환경과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행태 사이의 이론적, 실험적 관계성을 연구하는 환경심리학 분야로 확대되었다. 환경심리학에서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귀속되어 있는 존재로 주어진 환경에 대한 환경 지각, 환경 인지, 환경 태도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인간의 행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1) 환경결정론은 19세기 지리학자인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다윈의 진화론적 사고의 틀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였음. 인간은 주어진 환경(environment)에 적응(adaption)하고 그것에 따라 결정(selection)되며, 환경의 인지 또는 평가는 부분적인 해석 방법에 따른 평가보다는 총체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임.

2. 근린주거환경과 출산

근린(neighborhood)은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생활권으로 볼 수 있으며, 페리(C. Perry)의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론을 통해 개념이 설정된 이후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공간적 단위로 고려되었다. 근린환경(neighborhood environmental)은 근린을 구성하는 환경을 의미하며, 근린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개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반경 400m의 공간으로 간주한다(황희돈 2008). 또한 근린환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토지이용 현황, 각종 시설, 어메니티(amenity), 자연환경과 같은 물리적 환경부터 사회경제적 수준과 같은 비물리적 환경을 포함한다. 근린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근린효과(neighborhood effect)로 정의되며, 개인의 행동이나 사회·경제적 결과에 미치는 지역사회의 영향을 의미한다(Dietz 2002). 이러한 근린환경은 일상생활

속에서 근린환경 내 거주자에 게 영향을 미치며 건강, 경제 활동, 출산 수준 등 다양한 범주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김두섭 2007; 배광일 2015; 유치선 2015). 이 같은 근린 환경과 출산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박태원(2013)은 도시환경 조성에서 고착화된 공간 사용자로서 여성의 위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바탕으로 여성의 역할과 사회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여성친화적 공동주택 계획 시 고려할 수 있는 계획 요소로 안전성, 육아친화성, 자아실현성, 생활편의성, 심미경관성, 보행쾌적성을 제안하였다. 송향숙(2013)은 도시 환경 조성에서 복지적 관점으로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출산 당사자를 위한 보전, 도시 위험 등 도시 공간에서 소외된 여성을 고려할 필요성에 따라 도시소비자 및 사용 주체로서의 요구를 반영한 도시계획 기준으로 안전, 심미경관, 교통보행, 생활편의, 돌봄(보육), 주거안정을 제시하였다.

Table 1 _ Variable of Preceding Research on Neighborhood Unit and Childbirth

Researcher	Variables	
Park (2013)	Safety	CCTV Installation, Crime Prevention, Lighting Control, Security System etc.
	Infant Intimacy	Install Safety Equipment, Creation of a Park, Child Care Facility Expansion etc.
	Self-realization	Community Facilities, Self-improvement Center, Women-friendly Center Installation etc.
	Living Convenience	Secure Parking Space, Housing Arrangement, Set Up a Ubiquitous Environment etc.
	Aesthetic Scenery	Secure Waterside Facilities, Construct Trail, Unity of a Structure Design etc.
	Walking Comfort	Segregation of Pedestrian and Vehicle, Construct Walking Path, Resting Space Creation etc.
Song (2013)	Safety	Load Lighting Control, Secure Safety of Blind Spot, Civil Disaster Prevention etc.
	Aesthetic Scenery	Create Local Landmark, Public Art Piece Installation, Landscape Construction etc.
	Walking Transportation	Put Up a Road Sign, Pedestrian First Road, Pedestrian Transportation System etc.
	Living Convenience	Educational and Cultural Facilities, Commercial Facilities, Public Facilities etc.
	Caring(day Care)	Childcare Facilities, Secure Play Space Safety, Limitation Harmful Facilities etc.
Resident Stability	Limitation Noise, Limitation Entertainment Facilities, Residential Area Supply etc.	
Lee (2014)	Nursery Environment	Economical, Social and Physical Nursery Environment
	Nursery Life-infrastructure	Nursery Facilities, Playground, Culture Center, Children's Library, Hospital etc.
	Life-infrastructure	Pedestrian Environment, Segregation of Pedestrian and Vehicle, Public Transportation etc.
	Social Relationship Network	Entrust Nursery on Family, Entrust Nursery on Friend, Entrust Nursery on Neighborhood
	Child Care Support	Husband Assistant, Family Assistant, Neighborhood Assistant

이주림(2014)은 근린지역의 육아활동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탐색하고 육아환경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환경 만족도에 경제적 특성, 생활인프라, 육아 도움, 육아 관련 생활인프라, 사회적 관계망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인프라 중 육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인프라보다 일반적인 편의를 위해 공급되는 생활인프라 수준이 육아환경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근린환경과 출산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안전, 육아, 생활 편의, 심미경관 등의 항목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본 연구의 변수로 선정하였다.

출산율 감소 현상을 중심으로 논의한 선행연구는 크게 인구학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경제학적 측면, 정책적 측면 관련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의 인구학적 측면의 주된 원인은 20~30대 주혼인 연령계층 감소, 독신 선호, 초혼연령 상승,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등이 있다(권태환, 김태현, 최진호 1995; 손승영 2005). 염지혜(2013)는 강남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취업 여부, 남아 자녀 여부, 자녀수 등을 변수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현재 자녀가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민(2012)은 영아 자녀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자녀 가치관 및 양육 지원과 후속 출산 계획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였으며, 연구 결과 영아자녀 가구의 인구학적 변인 중에서 영아의 출생 순위와 어머니의 연령이 부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조사 당시 해당 영아의 출생 순위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후속 출산 계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해외의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Pollard and Morgan(2002)는 자녀의 성별, 자녀 수, 부모 연령, 교육 수준,

어머니의 취업 여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거주지역 등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문화적 측면 관련 연구에서 김승권(2004)은 저출산 원인을 출산·양육의 비친화적 사회제도 및 문화, 양성 불평등 노동시장, 자녀양육 부담과 지원 정책 미비, 남성 중심 가족 문화, 다양한 가족 이해 및 정책 부족 등으로 미혼율 증대와 기혼 부인의 자발적·비자발적 소자녀 선호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유삼현(2007)은 지역별 차별출산력을 분석한 결과 양성평등 관념은 가족 형성과 출산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가족형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출산력 저하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eets(1997)는 높은 교육 수준이 여성의 능력과 경제 활동 기회를 고양시켜 노동시장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여성의 결혼 선호도를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외(2009)는 2006년 기준 부모들의 자녀 양육 책임 최종 시점을 대학 졸업까지가 약 46퍼센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의 책임 한계가 장기간이 되어 양육비 부담의 증가로 연결되어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엄명용, 김효순(2011)은 일·가족 양립방안, 성 역할 태도 및 저출산 문제에서 미혼 남녀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양육비와 교육비용 부담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저출산 대응정책은 다양한 미시적·사회적 요인들과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지며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유계숙 2009). 유계숙(2009)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과 함께 시행된 저출산 정책들이 2007년 출산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불임 부부 지원, 모자 건강관리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비·교육비 지원정책은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 정책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2012)는 제1차 저출산기본계획으로 추진된 저출산 관련 시책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저출산 관련 시책의 인지도와 경험도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 및 양육 관련 지원 정책의 인지도와 이용 경험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성평등 문화조성 등이 출산계획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해외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연구들은 대체로 보육 정책이 출산 수준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했으며(Sleeboos 2003; D'Addio and Mirad'Erole 2005), 특히 여성의 보육시설 이용 가능성 및 지원제도는 여성의 출산과 일의 조화를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Addio and Mirad'Erole 2005). 앞서 논의된 선행연구들은 출산감소 현상을 인구, 사회·문화, 경제, 정책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논의되었으나 주로 거시적 관점의 정량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와 같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근린주거환경의 물리적 환경 조성 측면 등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여성의 자기계발 기회 제공 등과 관련된 자아실현과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정책 지원 측면 관련 연구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분석과 가임기 여성이 실제로 체감하는 출산 주체로서의 의견을 파악하고, 근린환경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미시적 접근 방법을 통해 근린환경 평가요소가 거주 만족,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러한 접근방

법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III. 사례 대상지 분석

1. 사례 대상지 선정 배경

본 연구를 위한 사례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Figure 1>과 같은 사례 대상지 선정 과정을 거쳤다.

조사 지역 선정을 위해 시·군·구별 일반 출산율 현황을 검토하였다. 시·군·구 일반 출산율(2011년 기준)의 전국 평균은 33.4명이고 지방은 35.0명으로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32.5명, 광역시 30.1명 등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수도권 중에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 각각 29.6명, 32.7명 등 평균 이하로 나타났지만 경기도는 평균 이상(34.8명)으로 지방의 일반 출산율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출산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객관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시·군·구 일반 출산율 평균과의 차이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였다. 일반 출산율 평균 $\pm 0.1 \times$ 표준편차(σ)인 지역을 평균 그룹인 D그룹으로

Figure 1 _ Selection Process of Case Target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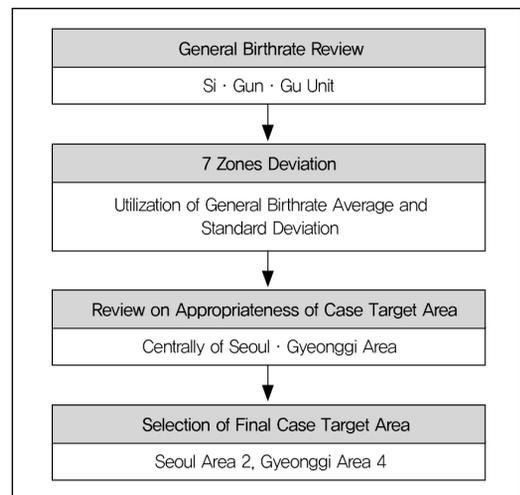


Table 2 _ General Birthrate Average and Distance with Standard Deviation of Si, Gun and Gu for Each Region (unit: person)

Category	National	Metropolitan Area	Metropolitan City (Excluding Incheon)	Province	Seoul	Gyeonggi-do	Incheon
$\mu + 1.5\sigma$	43.6	41.4	38.5	45.6	34.8	44.3	42.1
$\mu + 0.5\sigma$	36.8	35.5	32.9	38.5	31.4	38.0	35.8
$\mu + 0.1\sigma$	34.1	33.1	30.6	35.7	30.0	35.4	33.3
μ	33.4	32.5	30.1	35.0	29.6	34.8	32.7
$\mu - 0.1\sigma$	32.8	31.9	29.5	34.3	29.3	34.1	32.0
$\mu - 0.5\sigma$	30.0	29.6	27.2	31.4	27.9	31.6	29.5
$\mu - 1.5\sigma$	23.2	23.6	21.6	24.3	24.4	25.3	23.2

Note: μ and σ indicate the general birthrat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in Si, Gun and Gu.

Table 3 _ Regional Division for Each General Birthrate Level in Metropolitan Area·Seoul·Gyeonggi

Category	Metropolitan Area	Seoul	Gyeonggi
A Group	Hwaseong-si, Osan-si, Ongjin-gun, Gwangmyeong-si	Guro-gu, Yeongdeungpo-gu	Hwaseong-si, Osan-si
B Group	Anseong-si, Incheon-si_Dong-gu, Gunpo-si, Icheon-si, Paju-si, Gwangju-si, Yangju-si, Guro-gu, Dongducheon-si, Namyangju-si, Yongin-si, Incheon-si_Jung-gu, Pyeongtaek-si, Yeongdeungpo-gu	Gangseo-gu, Yongsan-gu, Dongjak-gu, Mapo-gu, Gangdong-gu, Seongdong-gu	Gwangmyeong-si, Anseong-si, Gunpo-si, Icheon-si, Paju-si, Gwangju-si
C Group	Siheung-si, Yeoncheon-gun, Namdong-gu, Gangseo-gu, Yongsan-gu	Seongbuk-gu, Jung-gu, Seocho-gu, Songpa-gu, Gwanak-gu, Eunpyeong-gu	Yangju-si, Dongducheon-si, Namyangju-si, Yongin-si, Pyeongtaek-si
D Group	Incheon-si_Seo-gu, Yeosu-gun, Dongjak-gu, Gimpo-si, Mapo-gu, Hanam-si	-	Siheung-si
E Group	Uiwang-si, Incheon-si_Nam-gu, Seongnam-si, Gangdong-gu, Seongdong-gu, Suwon-si, Seongbuk-gu, Yangpyeong-gun, Seoul_Jung-gu, Seocho-gu, Guri-si, Bucheon-si, Songpa-gu, Gapyeong-gun, Gwanak-gu, Eunpyeong-gu, Anyang-si, Ansan-si, Bupyeong-gu	Gangbuk-gu, Dongdaemun-gu, Dobong-gu	Yeoncheon-gun, Yeosu-gun, Gimpo-si, Hanam-si, Uiwang-si, Seongnam-si
F Group	Gyeyang-gu, Pocheon-si, Gangbuk-gu, Dongdaemun-gu, Uijeongbu-si, Dobong-gu, Geumcheon-gu, Jungnang-gu, Goyang-si, Nowon-gu, Gwangjin-gu, Seodaemun-gu, Yeonsu-gu, Gwacheon-si, Gangnam-gu	Geuncheon-gu, Jungnang-gu, Nowon-gu, Gwangjin-gu, Seodaemun-gu, Gangnam-gu	Suwon-si, Yangpyeong-gun, Guri-si, Bucheon-si, Gapyeong-gun, Anyang-si, Ansan-si, Pocheon-si, Uijeongbu-si, Goyang-si
G Group	Yangcheon-gu, Jongno-gu, Ganghwa-gun	Yangcheon-gu, Jongno-gu	Gwacheon-si

Note: The order of each cell region refers to the birthrate ranking within the relevant cell.

하고 D그룹보다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일반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A그룹, 표준편차의 1.5배 이하 0.5배 이상 높은 지역은 B그룹, 0.5배 이하 0.1배 이상 높은 지역은 C그룹으로 정의하였다.

마찬가지로 표준편차의 1.5배, 0.5배, 0.1배를 기준으로 일반 출산율이 평균 그룹인 D그룹보다 더 낮은

지역을 각각 E, F, G 그룹으로 정의하였다. 2011년 수도권에서 일반 출산율이 가장 높은 그룹인 A그룹에 속하는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기도 광명시로 각각 54.3명, 51.3명, 44.8명, 42.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성시와 오산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출산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_ Birthrate of Individual Case Target Area

Category	Number of Birth (person)	Total Population (person)	Female Population (person)	Fertile Women (person)	Crude Birthrate (thousand people)	General Birthrate (thousand people)
Hwaseong-si, Dongtan 3-dong	929	40,427	20,470	12,016	22.98	39.15
Osan-si, Sema-dong	259	14,235	7,007	3,883	18.19	32.83
Yeongdeungpo-gu, Yangpyeong 1-dong	281	17,243	8,588	4,700	16.30	29.78
Uijeongbu-si Ganeung 1-dong	192	26,933	13,484	7,266	7.13	13.23
Goyang-si Madu 1-dong	118	28,047	14,419	8,677	4.21	6.99
Yangcheon-gu Mok 5-dong	159	46,046	23,094	13,708	3.45	5.82

Notes: 1) Crude birthrate: The total number of birth for 1 year is divided by mid-year population of the current year, and shown in ratio of 1,000 / Total Number of birth for specific 1 year / Mid-year population of current year * 1,000

2) General birthrate: The total number of birth for specific 1 year is divided by fertile women population (Age 15~49) of the current year, and show in ratio of 1,000 / Total Number of birth for specific 1 year / Fertile women population of current year * 1,000

Source: Statistics annual report in the homepage of relevant autonomous region (Gu) 2012.

반면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23.5명, 종로구 23.0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22.8명으로 A그룹 일반 출산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간 분류에서는 구로구와 영등포구의 일반 출산율이 각각 37.7명, 35.4명으로 A그룹에 속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였는데, 이는 수도권 전체 분류에도 B그룹에 속하는 평균 이상의 출산율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지역 간 분류에서는 과천시가 25.1명으로 G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근린단위의 도시환경이 거주 만족 및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출산율이 높은 지역과 출산율이 낮은 지역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 권역을 구분하여 총 6곳의 사례지역을 선정하였다. 서울지역에서는 A그룹에 속하는 영등포구와 G그룹에 속하는 양천구를 사례 지역으로 도출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출산율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는 화성시와 오산시의 출산율이 낮은 그룹에 속하는 의정부시와 고양시를 선정하였다. <Table 3>에서

보는 것처럼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지역은 과천시로 나타났지만, 과천시는 생활권이 강남권에 속하여 서울특별시와 비슷한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사례 지역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Table 4>의 사례 대상지 내 동 단위 출산율을 검토하여 출산율이 가장 높은 영등포구 양평1동, 화성시 동탄3동,

Figure 2 _ Spatial Range of a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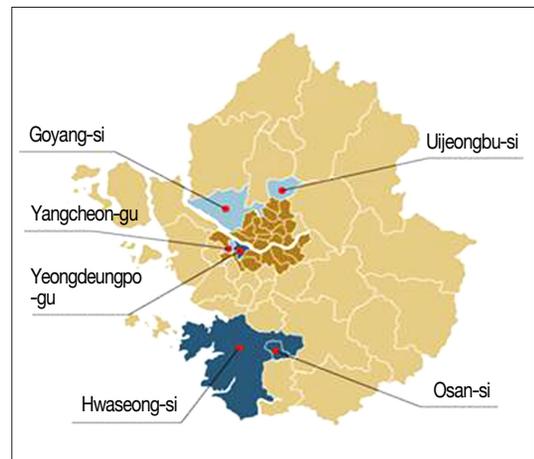


Table 5 _ Comparison School District and Administrative District

Area	Contents
Hwaseong-si, Dongtan 3-dong	
Osan-si, Sema-dong	
Yeongdeungpo-gu, Yangpyeong 1-dong	
Uijeongbu-si, Ganeung 1-dong	
Goyang-si, Madu 1-dong	
Yangcheon-gu, Mok 5-dong	

Table 6 _ Condition of Facilities in the Individual Case Target Area

Area	Contents
Hwaseong-si, Dongtan 3-dong	
Osan-si, Sema-dong	
Yeongdeungpo-gu, Yangpyeong 1-dong	
Uijeongbu-si, Ganeung 1-dong	
Goyang-si, Madu 1-dong	
Yangcheon-gu, Mok 5-dong	

Note: ■ Daycare Center, ■ Kindergarten, ■ Elementary School

Table 7_ Housing Status in the Individual Case Target Area

(unit: house, %)

Category	Number of General Households	Subtotal	Detached House	Apartment House	Row House	Multiplex Housing
Hwaseong-si	180,740	164,718	56,912(34.6)	111,943(68.0)	3,764	7,850
Osan-si	73,262	70,799	35,001(49.4)	47,896(67.7)	1,885	1,843
Yeongdeungpo-gu	139,353	131,119	60,593(46.2)	60,311(46.0)	2,655	6,599
Uijeongbu-si	145,889	142,152	71,679(50.4)	86,166(60.6)	2,567	13,777
Goyang-si	310,398	335,940	97,334(29.0)	209,610(62.4)	12,989	14,905
Yangcheon-gu	155,668	154,964	38,439(24.8)	81,836(52.8)	6,726	27,196

Note: Detached house includes multi-households.

Source: Statistics annual report in the homepage of relevant autonomous region (Gu) 2013.

Table 8_ Condition of Facilities in the Individual Case Target Area

(unit: freq.)

Category	Daycare Center	Kinder Garten	Elementary School
Hwaseong-si, Dongtan 3-dong	68	3	4
Osan-si, Sema-dong	15	7	3
Yeongdeungpo-gu, Yangpyeong 1-dong	9	4	2
Uijeongbu-si Ganeung 1-dong	20	2	3
Goyang-si Madu 1-dong	19	4	3
Yangcheon-gu Mok 5-dong	11	7	4

Source: Statistics annual report in the homepage of relevant autonomous region (Gu) 2013.

오산시 세마동, 출산율이 낮은 양천구 목5동, 의정부시 능1동, 고양시 마두1동을 연구의 구체적 사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사례 대상지 현황

사례 대상지 현황 탐색의 과정에서 행정동을 연구의 기본 단위로 설정하는 데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린환경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초등학교 학구도와 행정구역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Table 5>와 같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의 범위를 행정동 단위로 설정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개별 사례 대상지로 주거환경 내 주민편의시설,

여가놀이시설, 고용지원시설, 교육문화시설, 육아 관련 시설의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Table 8>과 같이 양육 및 보육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현황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례 대상지의 보육 및 양육 관련 시설의 수에서 차이가 나며, 특히 어린이집 수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도시 성격에 따라 관련 시설의 위치 분포 양상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성시 동탄3동, 고양시 마두1동, 양천구 목5동 등 신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육아 관련 시설수가 전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위치가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오산시 세마동, 영등포구 양평1동,

Table 9_Mock Age-specific Total Fertility Rate in the Individual Case Target Area

(unit: thousand people)

Age	Hwaseong-si	Osan-si	Yeongdeungpo-gu	Uijeongbu-si	Goyang-si	Yangcheon-gu
20~24	27.1	32.0	7.5	15.7	9.0	6.1
25~29	130.0	122.3	53.8	72.1	67.1	50.2
30~34	150.7	139.2	119.2	111.4	118.8	115.5
35~39	42.3	42.7	44.7	34.4	40.7	34.3
40~44	5.9	5.5	5.2	4.5	4.6	4.2
45~49	0.3	0.1	0.3	0.3	0.2	0.0

Source: Mock Age-Specific Fertility Rete, Si, Gun, Gu/Total Ferility Rate, Statistics Korea 2013.

의정부시 가능1동 등의 기성 시가지는 해당 시설의 수가 전반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치 분포에서 주거지역과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육아 관련 시설 현황은 주택단지 내 신도시 성격의 지역에서 보육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쾌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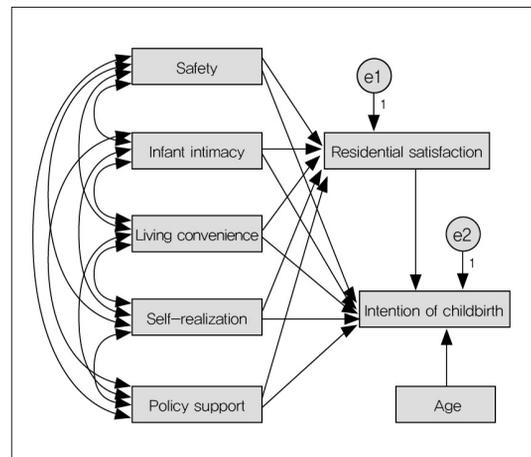
<Table 7>의 개별 사례 대상지의 상대적 주택유형 비율을 살펴보면,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은 화성시, 고양시, 양천구 등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도시는 택지개발에 따라 단지계획형 신도시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영등포구, 의정부시, 오산시의 경우에는 아파트 비율도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단독주택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도시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기성 시가지의 성격을 지닌 사례 대상지로 판단하였다. 개별 사례 대상지의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Table 9>와 같이 모든 사례 대상지에서 30~34세 가임기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29세, 35~39세 순으로 가임기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세 이상 가임기 여성은 합계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개별 사례 대상지의 주택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행정동 범위의 상위 시·군·구의 전반적인 주택유형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다.

IV. 실증분석

1.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환경결정론에 근거하여 ‘안전성’, ‘육아 친화성’, ‘자아실현성’, ‘생활편의성’, ‘정책지원성’을 근린주거환경 평가지로 선정하여 거주 만족과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Figure 3>과 같은 경로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설정 과정에서 개별 사례 대상지의 연령 분포가 다른 점과 사례 대상지의 합계출산율 검토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따라 나타나는

Figure 3_ Path Analysis Research Model



차이를 제한하기 위해 연령변수를 고려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본 연구를 위한 근린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독립변수 선정에서 선행연구의 변수를 조사하였으며, 출산과 양육 등의 관점에서 여성친화적 도시환경의 계획 요소를 도출한 박태원(2013)의 연구는 여성의 편에서 근린주거환경의 만족도를 탐색하고 거주 만족과 출산 의사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점에서 본 연구의 내용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안전성’, ‘육아친화성’, ‘자아실현성’, ‘생활편의성’, ‘심미·경관성’, ‘보행 쾌적성’ 등 6개 대항목과 세부 구성 요소를 차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단지계획, 건축, 여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조사의 주된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변수의 본 연구 목적과의 적합성 여부와 대항목 및 세부 구성 요소의 위계 검토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심미·경관성’ 항목은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였으며,

Table 10_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s		Definition of variables
Safety	Road Facility	Satisfaction on the Facility Required for the Purpose of Movement by Vehicle within the Urban Environment
	Pedestrian Facility	Satisfaction on the Facility Required for the Passage within the City
	Crime Safety	Satisfaction on the Facility Required for Preventing Crime and Securing Security within the City
Infant Intimacy	Childcare Facility	Satisfaction on the Facility Required for the Raising the Child such as Child Care Center and Kindergarten, etc.
	Educational Facility	Satisfaction on the Facility Required for Child Education such as Elementary School
	Children's Playground	Satisfaction on the Children's Playground and Parks, etc.
Living	Medical Facility	Satisfaction on the Facility Required for Treatment, such as Pediatric Hospital and Family Medicine Hospital, etc.
	Facility Related to Childbirth	Satisfaction on the Facility Required for Childbirth such as Obstetrics and Postnatal Care Center, etc.
	Leisure and Play Facility	Satisfaction on the Facility Required for Providing Functions of Relaxation such as Neighborhood Park
	Appropriateness of Housing Price	Satisfaction on the Level of Appropriateness on the Housing Price in Contrast to the Income Level
	Public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Satisfaction on the Convenience of Using Bus and Subway, etc.
Self	Amenities for Residents	Satisfaction on the Facility Required for Providing Convenience to the Residents such as the Dong Office
	Employment Support Facility	Satisfaction on the Facility Providing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Female Employment
	Education and Culture Facility	Satisfaction on the Facility Providing the Opportunity for Hobbies, etc.
Policy Support	Childcare Expense Support	Satisfaction on the Policies such as Childcare Expense and Educational Expense Support
	Pregnancy and Childbirth Support	Satisfaction on the Policies Supporting Sub-fertility(infertility) Treatment, Vaccination in Community Health Center, etc.

Table 11_ Demographical Status of the Respondents of the Survey

Category	Yeongdeungpo-gu Yangpyeong 1-dong (131 people)		Osan-si Sema-dong (128 people)		Hwaseong-si Dongtan 3-dong (122 people)		Goyang-si Madu 1-dong (132 people)		Uijeongbu-si Ganeung 1-dong (134 people)		Yangpyeong-gu Mok 5-dong (138 people)		
	Freq.	%	Freq.	%	Freq.	%	Freq.	%	Freq.	%	Freq.	%	
Age	20~24	7	5.3	3	2.3	10	8.2	4	3.0	27	20.1	3	2.2
	25~29	25	19.1	7	5.5	13	10.7	7	5.3	10	7.5	19	13.8
	30~34	60	45.8	41	32.0	55	45.1	97	73.5	44	32.8	27	19.6
	35~39	36	27.5	75	58.6	40	32.8	15	11.4	38	28.4	41	29.7
	over 40	3	2.3	2	1.6	4	3.3	9	6.8	15	11.2	48	34.8

Table 12_ Average Variance Analysis on the Satisfaction of Case Target Area Evaluation Item

Category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nificance Probability
Safety	Between Groups	93.449	5	18.690	43.390	0.000
	Within Group	335.549	779	0.130	-	-
	Total	428.999	784	-	-	-
Infant Intimacy	Between Groups	8.767	5	1.753	5.696	0.000
	Within Group	239.782	779	0.308	-	-
	Total	248.548	784	-	-	-
Self-realization	Between Groups	48.367	5	9.673	44.646	0.000
	Within Group	168.785	779	0.217	-	-
	Total	217.152	784	-	-	-
Living Convenience	Between Groups	32.2874	5	7.057	26.691	0.000
	Within Group	205.945	779	0.264	-	-
	Total	241.262	784	-	-	-
Policy Support	Between Groups	47.011	5	9.402	20.817	0.000
	Within Group	351.839	779	0.452	-	-
	Total	398.850	784	-	-	-

‘보행쾌적성’의 세부 항목은 타 항목과의 관련 정도를 검토하여 ‘안전상’과 ‘생활편의성’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추가적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도시환경 내에서 거주 만족 및 출산 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유계숙 2009; 정성호 2012; Sleebos 2003; D’Addio and Mirad’Erole 2005)를 고려하여 ‘정책 지원성’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5개의 대항목, 17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최종변수를 선정하였으

며, 구체적 내용은 <Table 10>과 같다.

3.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는 가임기 여성(20~49세)을 대상으로 2013년 8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 대상지별로 160부씩 9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총 850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조사 응답 과정에서 기입 누락 혹은

무성익한 응답을 보인 설문 65부를 제외한 총 785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 통계 현황은 <Table 11>과 같다.

4. 측정항목의 비교

근린환경 평가 항목의 지역별 비교에 앞서 설문조사

응답 결과의 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다음의 <Table 12>와 같이 안전성, 육아친화성, 자아 실현성, 생활편의성, 정책지원성 항목의 유의확률이 모두 0.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각 항목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의 근린주거환경 항목의 지역별 만족도 평균은 안전성 항목의 경우 기성 시가지보다는 단지 계획적 공동주택

Table 13 _ Average of Satisfaction on Detailed Items of the Case Target Area

Category		Built-up Area			New Town		
		Osan-si Sema-dong (Standard Deviation)	Yeongdeungpo-gu Yangpyeong 1-dong (Standard Deviation)	Uijeongbu-si Ganeung 1-dong (Standard Deviation)	Hwaseong-si Dongtan 5-dong (Standard Deviation)	Goyang-si Madu 1-dong (Standard Deviation)	Yangcheon-gu Mok 5-dong (Standard Deviation)
Safety	Road Facility	3.07(1.029)	3.25(0.895)	2.46(0.657)	3.12(0.997)	3.45(0.868)	3.36(0.866)
	Pedestrian Facility	3.05(0.873)	3.12(0.841)	2.39(0.728)	3.31(0.834)	3.37(0.848)	3.43(1.046)
	Crime Safety	2.83(0.885)	3.00(0.656)	2.34(0.765)	3.10(0.938)	3.04(0.579)	3.71(0.720)
Infant Intimacy	Childcare Facility	3.67(0.888)	3.14(0.717)	3.15(0.611)	2.83(0.990)	3.75(0.936)	3.14(0.760)
	Educational Facility	3.31(1.025)	3.19(0.746)	2.99(0.756)	3.05(0.840)	3.20(0.405)	3.29(0.799)
	Children's Playground	2.55(0.994)	3.02(0.789)	2.71(0.919)	3.29(0.979)	2.76(0.632)	3.08(0.936)
Living	Medical Facility	2.63(0.871)	3.16(0.783)	2.50(0.829)	3.42(0.888)	3.32(0.718)	3.27(0.894)
	Facility Related to Childbirth	2.60(0.747)	3.20(0.661)	2.63(0.760)	2.86(0.819)	3.00(0.000)	2.62(0.816)
	Leisure and Play Facility	3.02(0.878)	3.09(0.825)	2.61(0.783)	3.54(0.763)	3.76(0.635)	3.61(0.991)
	Appropriateness of Housing Price	2.72(0.744)	3.17(0.805)	2.48(0.811)	2.83(0.837)	2.46(0.805)	2.62(0.981)
	Public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2.12(1.019)	3.45(0.694)	2.85(0.877)	3.17(0.859)	3.08(0.855)	3.40(0.945)
Self-	Amenities for Residents	2.98(0.874)	3.20(0.695)	2.63(0.719)	3.16(0.979)	2.87(0.561)	3.54(0.716)
	Employment Support Facility	2.53(0.639)	3.14(0.613)	2.45(0.998)	2.75(0.809)	2.95(0.240)	2.70(0.842)
	Education and Culture Facility	3.17(0.665)	3.16(0.543)	2.68(1.029)	2.95(0.842)	2.85(0.506)	3.63(0.812)
Policy Support	Childcare Expense Support	3.44(0.994)	2.88(0.730)	3.07(0.880)	3.38(0.970)	3.10(0.586)	3.04(0.968)
	Pregnancy and Childbirth Support	1.48(0.615)	2.94(0.727)	2.97(0.703)	3.15(0.900)	2.88(0.336)	2.49(0.664)
Residential Satisfaction		3.19(0.978)	3.07(0.852)	2.87(0.744)	3.82(0.727)	3.67(0.650)	3.82(0.920)
Intention of Childbirth		2.78(0.880)	2.58(0.793)	2.49(0.644)	2.56(0.688)	2.99(0.725)	2.79(0.702)

이 밀집된 신도시 거주민들이 안전성에 더 높은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 시가지 거주민은 상대적으로 도로, 보행, 범죄 등 안전성 항목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친화성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관련 만족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시 세마동, 고양시 마두1동은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육 관련 시설의 위치가 단지 내에 위치함에 따라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높은 값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아실현성 항목의 만족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주민센터, 복지센터 등 지원시설 이용 빈도가 대부분 응답자에게서

낮게 나타난 것을 그 원인으로 해석하였다. 생활편의성 항목의 경우에는 사례 대상지별로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의정부시 가농1동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만족도를 지닌 것을 나타냈으며, 오산시 세마동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양평1동의 경우에는 기성 시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생활편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도심권이라는 입지적 특성에 따라 도심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인근 지역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였다. 또한 고양시 마두1동, 화성시 동탄3동, 양천구 목5동의 경우에는

Table 14_ Comparison Path Analysis Result in the Individual Case Target Area

Category			Built-up Area			New Town		
			Osan-si Sema-dong	Yeongdeungpo-gu Yangpyeong 1-dong	Uijeongbu-si Ganeung 1-dong	Hwaseong-si Dongtan 5-dong	Goyang-si Madu 1-dong	Yangcheon-gu Mok 5-dong
Safety	→	Residential Satisfaction	0.354***	0.151	0.411***	-0.206	-0.355***	0.299***
Infant Intimacy	→	Residential Satisfaction	0.370***	0.218	-0.140	0.224**	0.794***	-0.001
Living Convenience	→	Residential Satisfaction	0.429***	0.582***	-0.029	0.630***	2.457***	0.730***
Self-realization	→	Residential Satisfaction	0.181***	0.336*	-0.427***	0.118	0.285*	0.049
Policy Support	→	Residential Satisfaction	0.104	-0.001	0.234**	-0.380***	-1.009	-0.269**
Safety	→	Intention of Childbirth	0.115	0.086	0.099***	0.044	0.156	-0.028
Infant Intimacy	→	Intention of Childbirth	0.562***	0.348***	0.392***	0.343***	0.597	0.644***
Living Convenience	→	Intention of Childbirth	-0.161	0.334***	0.034***	0.630***	0.412	0.305***
Self-realization	→	Intention of Childbirth	-0.010	-0.191	-0.020	-0.296***	0.014	0.059**
Policy Support	→	Intention of Childbirth	-0.263	-0.020	0.038	0.076	-0.231	0.042***
Residential Satisfaction	→	Intention of Childbirth	0.220***	0.210***	-0.005	0.030	-0.089	0.040
Intention of Childbirth	→	Age	-0.167	0.348***	-0.094***	-0.145***	-0.170***	0.006***

Notes: 1) ***: P<0.01, **: P<0.05, *: P<0.1.

2) Shading are variables that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계획적 단지 설계 기준을 통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등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생활편의성과 관련한 만족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책지원성의 경우 대다수의 설문 응답자에게서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경험한 대상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조사 결과 해석에서 매우 제한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5. 경로분석 결과

<Table 14>의 지역별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안전성 항목의 경우 거주 만족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 대상지는 오산시 세마동, 의정부시 가능1동, 양천구 목5동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안전성 항목이 출산 의사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의정부시 가능1동으로만 나타났다. 육아친화성 항목의 경우 오산시 세마동, 화성시 동탄3동, 고양시 마두1동에서 거주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의사와의 관계에서는 고양시 마두1동을 제외한 모든 사례 대상지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생활편의성 항목과 거주 만족의 관계에서는 의정부시 가능1동을 제외한 모든 사례 대상지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의사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영등포구 양평1동, 의정부시 가능1동, 화성시 동탄3동,

양천구 목5동으로 나타났다. 자아실현성 항목이 거주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오산시 세마동, 영등포구 양평1동, 고양시 마두1동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산 의사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양천구 목5동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지원성 항목이 거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의정부시 가능1동이 유일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양천구 목5동으로만 나타났다. 거주 만족과 출산 의사의 관계에서는 오산시 세마동과 영등포구 양평1동이 긍정적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경로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사례 대상지별로 거주 만족과 출산 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지역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사례 대상지에서 거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활편의성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의료시설, 주택가격, 대중교통 접근성 등의 시설은 일상적 생활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의정부시 가능1동의 경우에는 거주 만족에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교외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타 사례 대상지보다 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시설 등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였다.

또한 근린환경 평가 항목과 출산 의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높은 긍정적(+) 영향 관계 빈도를 나타낸 항목은 육아친화성, 생활편의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Table 15_ Comparison of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on Whole Group

Category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afety	→	Intention of Childbirth	0.214	0.038	0.252
Infant Intimacy	→	Intention of Childbirth	0.161	0.029	0.190
Living Convenience	→	Intention of Childbirth	0.306	0.055	0.361
Self-realization	→	Intention of Childbirth	-0.002	0.000	-0.002
Policy Support	→	Intention of Childbirth	-0.042	-0.008	-0.050

Table 16 _ Goodness of This Study Model

(n=785)

Absolute Fit Index				Incremental Fit Index	
CMIN	df	P	GFI	NFI	CFI
75.712	6	0.000	0.978	0.949	0.952

육아친화성의 세부 구성요소 보육, 교육시설 등은 출산·양육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편의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자녀 양육 환경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세부 구성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성요소에 대한 만족은 출산 의사와 긍정적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6개 사례 대상지 전체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 분석에 앞서 <Table 16>의 연구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절대적합도 지수 CMIN 값의 유의확률이 0.05 이하이며, CMIN/df 값이 3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본 연구의 표본이 750 부 넘는 대표본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였다.

기초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값은 모두 0.9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의 전체집단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안전성, 육아친화성, 생활편의성은 거주 만족에 긍정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실현성 항목의 경우에는 주민센터, 고용지원시설, 교육·문화시설 등의 세부 구성요소로 해당 시설 이용 빈도가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지니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책 지원성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였다. 출산 의사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안전성, 육아친화성으로 나타났다. 안전성과 육아친화성은 실제 생활 외 아이들의 보육 및 양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으로 해당 변수의 세부 구성요소 만족은 출산 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생활편의성 항목의 경우에는 자녀 환경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지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실현성과 정책지원성 항목의 경우에는 유의미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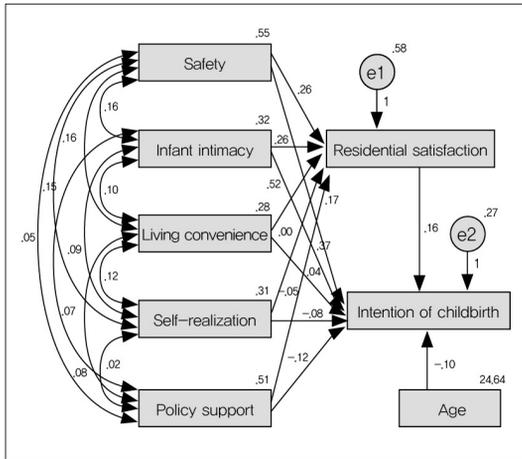
Table 17 _ Path Analysis Result in Whole Group

Category			Estimate	S.E	C.R	P
Safety	→	Residential Satisfaction	0.259	0.043	5.992	0.000***
Infant Intimacy	→	Residential Satisfaction	0.256	0.055	4.686	0.000***
Living Convenience	→	Residential Satisfaction	0.520	0.061	8.475	0.000***
Self-realization	→	Residential Satisfaction	-0.003	0.056	-0.059	0.953
Policy Support	→	Residential Satisfaction	-0.053	0.040	-1.343	0.953
Safety	→	Intention of Childbirth	0.173	0.030	5.800	0.000***
Infant Intimacy	→	Intention of Childbirth	0.375	0.037	10.030	0.000***
Living Convenience	→	Intention of Childbirth	0.038	0.043	0.867	0.386
Self-realization	→	Intention of Childbirth	-0.084	0.038	-2.220	0.026**
Policy Support	→	Intention of Childbirth	-0.120	0.027	-4.490	0.000***
Residential Satisfaction	→	Intention of Childbirth	0.160	0.024	6.632	0.000***
Intention of Childbirth	→	Age	-0.099	0.004	-26.595	0.000***

Notes: 1) *** P<0.01, ** P<0.05, * P<0.1.

2) Shading are variables that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Figure 4_Path Analysis Result in Whole Group



부정적(-)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 실현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 또는 사회 진출을 위한 여성 지원과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출산 의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책지원성의 경우 자녀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이 실제 가임기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성을 지니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였으며, 이는 설문조사의 과정에서 관련 정책의 인지도 및 경험을 지닌 응답자 빈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결국, 안전성과 육아친화성은 거주 만족과 출산 의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을 중심으로 거주 만족을 향상하면 출산 의사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고도성장기를 지나 다양한 사회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사회적 고령화와 함께 심각하게 부상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경쟁력 약화의 현실화와 함께 도시 존속의 지속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근린환경의 생활 주체이자 거주 만족으로서의 여성에 주목하고 동일한 관점에서 근린주거환경과 거주 만족 및 출산 의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사례 대상지의 근린평가 항목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사례 대상지별 가임여성이 체감하는 거주 만족은 서울시 양천구 목5동이 가장 높고, 경기 화성시 동탄3동, 고양시 마두1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적 신도시의 성격을 지닌 사례 대상지로 볼 수 있으며, 도시의 조성 단계에서 단지계획에 따른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실제로 고양시 마두1동과 서울시 양천구 목5동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에 의한 주거공간 구성을 통해 대단지형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과 계획 초기 단계부터 대중교통 편의 및 기반시설을 고려한 관성으로 현재까지 거주 만족이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화성시 동탄3동은 2000년대 후반에 수도권인 경기도 화성시에 선계획 후개발에 의한 신도시계획에 의한 대단위 주거단지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지로 신도시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거주 만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근린주거 환경에 따라 출산의 차이가 존재하는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계획된 신도시는 이미 확보된 도시기반시설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출산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조사 결과로 나타났으며, 계획된 신도시는 양호한 근린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경로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거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례 대상지마다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으나 의정부시 가능1동을 제외한 모든 대상지에

서 생활편의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시 세마동, 화성시 동탄3동, 고양시 마두1동의 경우에는 육아친화성이 근린환경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 양평1동과 오산시 세마동의 경우 근린환경 만족이 출산 의사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 대상지로 나타났다. 의정부시 가능1동의 경우 자아실현성이 거주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사례 대상지의 관련 시설이 타 사례 대상지에 비해 열악하여 상대적 만족 저하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였다. 고양시 마두1동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거주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노후화에 따라 안전 관련 시설의 낙후로 나타난 결과이며 화성시 동탄3동과 양천구 목5동의 경우에는 정책 지원성이 거주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비 지원, 임신과 출산 지원 등의 정책이 가임기 여성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였다.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모든 사례 대상지에서 육아친화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화성시 동탄3동의 경우에는 자아실현성이 출산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 지원 등을 통한 여성의 사회 진출 실현 기회 제공에 따라 가임기 여성의 출산 의사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체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에서는 안전성, 육아친화성, 생활편의성은 거주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으며, 거주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생활편의성으로 나타났다. 출산 의사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경우 안전성, 육아친화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친화성은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 놀이시설의 세부항목으로서 양호한 관련 시설이 가임기 여성의 거주 만족 및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거주 만족은 출산 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근린환경과 거주 만족, 출산 의사의 관계를 종합한 결과 전반적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린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편의성 측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산, 육아와 관련된 시설은 출산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노후 도로의 정비 등을 통한 안전성(교통, 범죄) 제고 및 양질의 출산·양육 관련 시설을 갖춘다면 가임기 여성의 거주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현재 출산율이 저조한 지역이라도 장기적으로 출산 의사를 향상시켜 전반적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결정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출산과 육아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근린주거환경과 거주 만족, 출산 의사의 관계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것에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출산 및 양육의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인구통계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거주민이 체감하는 근린환경 범위 인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권태환, 김태현, 최진호. 1995. 한국의 인구와 가족. 서울: 일신사.
Kwon Taehwan, Kim Taehun and Chol Jinho. 1995. *Population and Family of Korea*. Seoul: Ilsinsa.
2. 김두섭. 2007. 저출산 사회의 결혼, 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m Doosub. 2007. *A Study on Marriage, Child Nurturing and Family life of Low Fertility Society*.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 김승권. 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27권, 2호: 1-34.
Kim Seungkwon. 2004. Change in fertility rates in Korea: Causes and Future Prospects, 2004.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7, no.2: 1-34.
4. 김승권, 김유경, 조애지, 김혜련, 임성은.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m Seungkwon, Kim Eukyung, Jo Aejeu, Kim Hyeryun and Yim Seungeun. 2009. *The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Survey*.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5. 박태원, 천현숙, 송향숙. 2013. 여성친화형 공동주택 계획요소와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77권: 17-34.
Park Taewon, Chun Hyenonsook and Song Hyangsook. 2013. Planning components and priority of women-friendly housing complex.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77: 17-34.
6. 배광일. 2015. 모의 심리적 요인 및 지역사회 양육환경이 출산포기에 미치는 영향: 현재자녀수에 따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7권, 1호: 31-53.
Bae Gwangil. 2015. The influence of maternal psychological factors and community child-care environment on the abandonment of childbirth: Comparison by the current number of childr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7, no.1: 31-53.
7. 손승영. 2005.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17권, 2호: 115-136.
Sohn Seongyoung. 2005. Cause of low fertility rate in Korean society and suggestions for family-friendly policies. *Family and Culture* 17, no.2: 115-136.
8. 송향숙, 박태원. 2013. 계층분석비법을 활용한 여성친화도시 계획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6권, 4호: 361-383.
Song Hyangsook and Park Taewon. 2013. Urban planning criteria for women-friendly city by AHP.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6, no.4: 361-384.
9. 엄명용, 김효순. 2011. 미혼 남녀의 향후 일·가정 양립 방안, 부부 성역할 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견해 간 관계 탐색 연구. *한국인구학* 34권, 3호: 179-208.
Um Myungyong and Kim Hyosoon.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uture work-family compatibility, gender attitude of couples, and reasons for low birth rat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4, no.3: 179-208.
10. 염지혜. 2013. 추가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강남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75권: 43-63.
Yeom Jihye. 2013. Factors affecting additional childbirth intention: Focusing on Gangnam-gu.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5: 43-63.
11. 유계숙. 2009. 저출산 대응정책이 출산순위별 출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권, 2호: 191-201.
Yoo Gyesook. 2009. The effect of policies on childbirth by birth order.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27, no.2: 191-201.
12. 유삼현. 2007. 지역의 차별출산력 분석을 통한 저출산 인과구조의 이해.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Yoo Samhyun. 2007. *On Regional Fertility Differentials: Understanding the Casual Mechanisms of Low Fertility in Korea*. M.S. diss., University of Hanyang.
13. 유치선, 이수기. 2015. 근린환경, 사회적 자본, 그리고 커뮤니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인과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토계획* 50권, 7호: 5-23.
Yoo Chisun and Lee Sugie. 2015. Neighborhood environment, social capi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of community: explanatory study on causal relationships. *Journal of the Korea Planning Association* 50, no.7: 5-23.
14. 이주림. 2014. 주거 생활권의 육아환경 평가체계 및 영유아 부모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Lee Julim. 2014. *A Study on the Evaluation System for Child Rearing Environment of Living Sphere and the Quality of Life for Parents of Infant and Toddler*. Ph.D. diss., University of Hanyang.
15. 이형민. 2012. 후속출산계획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 영아기 자녀를 둔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70권: 1-31.
Lee Hyungmin.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additional birth plan: Focused on Korean households with infant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0: 1-31.
16. 정성호. 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5권, 1호: 31-52.
Chung Sungho. 2012.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5, no.1: 31-52.
17. 황희돈, 김찬호. 2008. 신도시 근린생활권 계획 기준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3권, 4호: 49-64.
Hwang Heedon and Kim Chanho. 2008. A Study on the standards for planning neighborhood unit in Korea New

- Towns. *Journal of the Korea Planning Association* 43, no.4: 49-64.
18. Rapoport, A. 1978. Toward a redefinition of destiny. *Environmental and Behavior* 7, no.2: 135-158.
19. Beets, G. C. N. 1997. European variations in education and in timing of first birth: Preliminary FFS-Evidence. *23rd General IUSSP Population Conference*, 11-17 October. Beijing, China.
20. Bell, P. A., Fisher, J. D. and Loomis, R. J. 1978. *Environmental Psychology*. Philadelphia: WB Saunders Company.
21. D'Addio, A. C. and d'Ercole, M. M. 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27, Paris: OECD.
22. Dietz, R. D. 2002. The estimation of neighborhood effects in the social science: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Social Science Research* 31, no.4: 539-575.
23. Pollard, M. S. and Morgan, P. 2002. Emerging parental gender indifference: Sex composition of children and the third bir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 no.4: 600-613.
24. Sleebos, Joelle E. 2003. Low fertility rate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15, Paris: OECD.

- 논문 접수일: 2016. 4. 10.
- 심사 시작일: 2016. 4. 22.
- 심사 완료일: 2016. 6. 2.

요약

주제어: 근린주거환경, 거주 만족, 출산 의사, 경로분석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사회적 이슈를 넘어 국가 존속의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는 가구 차원의 사회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물리적 주거환경에 주된 연구 초점을 맞추고 출산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선별하여 근린 차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례 대상지 내 가임기 여성들이 공간 사용 주체로서 체감하는 근린주거환경 요

소가 거주 만족과 향후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편의성, 안전성, 육아친화성이 거주 만족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안전성과 육아친화성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근린환경과 출산 의사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기본 생활환경 단위인 근린환경에서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탐색하여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